

성병의 종류 와 증상



한 규 호

3. 비임균성요도염

2차대전후 임질은 페니실린에 의해 많이 감소되었으나 이와는 상대적으로 비임균성요도염은 임질을 앞지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임균 이외의 원인으로 생기는 모든 요도염을 비임균성요도염 이라고 하며, 비임균성요도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다양함으로 비임균성요도염은 그 범위가 넓고 분류하기도 매우 복잡하다. 비록 원인균은 다르다 하더라도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같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비임균성요도염 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1951년에 영국에서 처음 보고됨으로써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이것이 중요시 되게 된 것은,

임질은 페니실린으로 잘 치료가 되나 비임균성요도염은 페니실린으로서는 치료가 안되고 다른 항생제로서 치료가 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비임균성요도염의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비임균성요도염은 남성 전체 요도염의 20~80%를 점하고 있어 약 2/3에 해당된다. 미국에서는 전체 요도염속에서 비임균성요도염이 점하는 비율은 흑인에서는 30%인데 비해서 백인에서는 80%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임질대 비임균성의 비는 1 : 2 정도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69~1979년 사이, 즉 10년동안에 임질은 110%가 증가했는데 비임균성 요도염은 무려 454%나 증가했다. 이와 같이 근래에 와서 임질을 앞질러 비임균성요도염이 증가하는것은, 진단법이 발달함으로서 과거보다는 이 병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 또한 피임법의 보편화로 성병 예방효과가 있는 콘돔의 사용을 기피하는 태도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것 같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 병은 특히 젊은층에 많을뿐 아니라 임질에 비해서 흑인보다는 백인에 많고, 교육과 경제등 사회적수준이 높은 계층과 학생층에 많다는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비임균성요도염의 원인균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그중에서도 비임균성요도염의 30~60%를 차지하는 “클라미디아”라고 하는 세균이 주된 원인균으로 밝혀져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 “클라미디아균”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욱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비임균성요도염에 감염되면, 임질때보다 그 잠복기가 길어서 감염후 2~3주일후에나 증상이 나타나는데, 임질에 비해서 증상이 가볍기도 하고 때로는 무증상일때도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요도의 분비물이 많아지고 요도가 가려우며 소변시에 아프고 불쾌감을 느낄뿐 아니라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이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남성은 전립선염과 부고환염을, 그리고 여성에 있어서서는 자궁내막염과 난관염등을 일으켜 남녀다 같이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비임균성요도염의 진단을 위해서는 요도분비물, 요침사, 전립선분비물등에서 염색검사, 배양검사 또는 특수조직 배양검사 등의 여러가지 검사를 통하여, 원인균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임균이 없다는 점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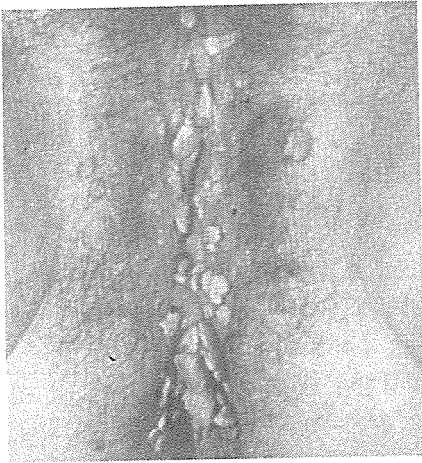
그리고 이 병에는 페니실린은 효과가 없고, 다른 항생제로서 치료가 잘 되고 있으나, 재발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철저한 치료가 요망 된다.

◀ 성기에 생기는 개선 즉 음이나 음모에 붙어사는 "이"도 역시 성행위에 의해 옮겨지는 것이므로 성행위 감염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4. 연성하감(軟性下疳)

이 병은 연성하감균(듀크레이간균)의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의 궤양으로서, 주위에 있는 임파선이 붓게 된다. 감염된지 2~3일이 지나면 여드름 같은 작은 부스럼이 성기에 생기게 되며, 이 부스럼은 곧 굵아서 궤양으로 된다.

처음에는 한개가 생기지만 고름속에는 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번져서 그 수가 많아질뿐 아니라 서로 융합(融合)되기도 한다. 남자는 음경에, 여자는 음순등에 주로 생기나 때로는 손가락이나 입술에 생기는 수도 있다. 길어 보기에 매독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매독의 궤양은 단단하고 통증이 없는데 비해서, 연성하감의 궤양은 연(軟)하고 아픈것이 특징이다. 그외에 혈청검사를 하게되면 구별이 된다. 이 병은 비교적 급성경과를 밟으나, 2~7주 정도의 치료로서 궤양은 완치되고 상처를 남기게 된다. 요즘에 와서는 항생물질의 발달로 1주정도의 치료로서 완치되는 수가 보통이다. 이 병을 앓는 동안에 주위(주로 사타구니)의 임파선에 염증이 퍼져서 고름이 생기면서 부어 올라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때로는 화농된 임파선을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5. 서혜임파육아종(鼠蹊淋巴肉芽腫)

이 병은 매독, 임질, 연성하감에 이어 성병으로서는 네번째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제 4 성병”이라고도 한다. 이병의 병원균은 바이러스의 일종이며, 이병의 원산지는 열대지방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다지 환자가 많지않을뿐 아니라 점차 감소돼 가는 추세에 있다. 증상으로서는 감염된지 2~3주후에 작은 물집이 국부에 생겨서 차차 혈어서 궤양으로 되고, 때로는 요도구(尿道口)가 붉게 부어오르기도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매우 가볍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 자신도 모르게 지나는 수가 많다. 약 10일쯤 경과하면 증상은 없어지나, 감염후 3~4주경에 서혜부(사타구니)에 있는 림파선이 부어오르고 통증(痛症)을 느끼게 된다. 처음에는 딱딱하던 종기가 차츰 부드러워지면서 피부로 터져나와 누공

◀ 콘디롬이 너무 자라서 귀두부를 덮게 되거나 또한 요도내에 생기면 요도를 막아서 소변을 보기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여자의 성기는 남자보다 더 습하기 때문에 질이나 음순에 잘 생기는데 콘디롬은 매독 2기에도 나타나므로 그것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瘻孔)을 만들고 고름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러한 누공이 여러곳에 생겼다가 흉한 상처를 남기고 치유가 되는데, 경과는 만성으로 진행되며 수개월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병은 항생제로서 쉽게 치료가 된다.

6. 성병성육아종(性病性肉芽腫)

이병은 “제 5 성병”이라고도 하며 원래 서혜임파육아종과 같이 열대지방에 많은 일종의 열대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않는 병이고 환자도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여러 분야에서 열대지방과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있을뿐 아니라 교통수단도 편리해지므로써 이병이 국내에 침입할 기회가 많기때문에 방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것이다.

이병은 감염된후 빠르면 1주일, 늦으면 2개월이 지난후에 국부에 수포(水泡)와 농포(膿泡) 등이 생기면서 매우 가렵다. 이들 수포와 농포는 곧 터져서 궤양으로 되어 헤어지거나 또는 굳은 살이 나오게 된다. 음부(陰部)에 주로 생기며 자가 전염(自家傳染)에 의해서 주위 피부에 번져나가게 되며, 음부, 서혜부뿐만 아니라 심하면 하복부까지도 번지

게 된다. 자각증상은 처음에는 몹시 가려우나 시간이 지나고나면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경과는 만성이며 수년 내지는 십여년에 이르기 도 하나 이병도 항생제에 의해서 그 치료는 용이하게 되었다.

7. 기타 성병(其他 性病)

우리나라에서 뱀으로써 성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것은 이상의 여섯종류이나,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넓은 의미로서의 성행위감염증(즉, 주로 성행위에 의해서 감염되는 모든 질병을 포함)에 포함되는 성병은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최근에 와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헤르페스” 또는 “허피스”라는 병은 요즘에 와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 아니며 2000년전부터 있어 왔던 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음부포진”(陰部疱疹)이라 하여 옛부터 있었던 병이다. 단지 요즘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이 “허피스”가 유행을 하여 세계적으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순허피스(單純허피스)는 바이러스가 원인균이며, 이에는 I형과 II형이 있고 I형은 배꼽이상 부위에 생기나 별로 증상없이 경과 한다. 피곤하게 되면 입술주위에 물집(水疱)이 생기는 수가 있는데 이것도 I형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의 좋은 예이다. 허피스중에서도 문제가 되는것은 II형이다. 이 II형은 주로 배꼽아랫부위 즉 하복부를 침범하며 남자에서는 처음 귀두부(龜頭部)에 수포진(물집)이 몇개 생기게 되는데 크기는 쌀알만 하며 가렵다. 곧 이어서 서혜부

에 있는 입과선이 붓고 통증을 느끼게 된다. 여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수포진이 외음부, 질벽, 자궁경관에 생기며 심한 통증이 수반 된다. 이러한 증상들은 치료없이 그대로 방치하더라도 2~3주후에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면 같은 부위에 재발하는 수가 많으며, 햇빛에 쬐인다던가, 또는 스트레스등 심신의 자극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허피스의 치료에는特效약은 없으며 증상에 따라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하나 감염부위를 청결히 하여 환부의 확대를 막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허피스외에도 바이러스에 의해 성기나 항문에 사마귀 비슷한 것이 자라나는 “침균콘디롬”이 있다. 이것은 붉은 색의 닭벼슬 같은 모양으로 커지며, 남자의 귀두부나 여자의 음순에 잘 생기고 지나치게 커져서 귀두부를 덮게 되면 소변을 보기 어렵게 되기도 한다. 또한 남자는 감염이 되어도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주로 여자에게서 증상이 잘 나타나는 “트리코모나스증”이라는 성병도 있다.

그외에 진균에 의해서 생기는 “칸디다증”은 여자의 경우에는 칸디다 질염으로 나타나는데 가려울뿐만 아니라 소변시에는 통증이 있고, 마치 우유가 몽친것 같은 분비물이 있게 된다. 남자에서는 음경이나 포피내부에 붉은 반점(班點)이 생기고 가려움이 지나쳐서 따가움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음모에 붙어 사는 “이(蟲)”와 음부에 생기는 “옴(疹癩)”등도 성행위 감염증에 포함 된다.

(필자=인구보건연구원·의박)